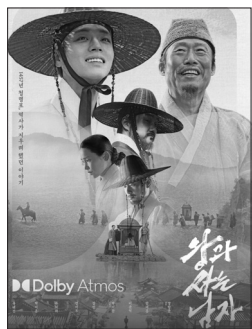


지역 소식통



부안예술회관, 21일 '왕과 사는 남자' 상영

부안군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21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5월 무료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 선을 뒤흔든 계유정난 이후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왕 이흥위(단종)의 유배 생활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러닝타임은 117분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관람은 12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으로 문의(☎ 063-580-3892)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마을쉼터 모정

안전 디딤돌 무상 지원

정읍시가 마을 어르신들의 안전한 휴식을 돕기 위해 오는 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정(마을쉼터) 안전 디딤돌 설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모정 마루에 오르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길이 1.5미터, 높이 20센티미터 크기의 석재 디딤돌을 해당 마을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는다.

시는 지난 2024년 이번 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4개 마을에 안전 디딤돌을 설치했다. 시는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도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 약 40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하전 바지락 축제' 성료

바지락 캐기·풍천장어 잡기·갯벌 트랙터 버스킹 등... 체험형 축제로 '큰 호응'

고창군 심원면 하전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열린 '제9회 하전바지락 오감 체험 페스티벌'이 사흘간(1~3일)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축제는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갯벌의 매력을 극대화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가정의 달을 맞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은 단연 '갯벌 퍼레이드'였다. 트랙터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갯벌로 나아가 즐기는 버스킹 공연과 보물찾기는 하전마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또한 바지락 캐기와 풍천장어 잡기 등 체험객들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생동감 넘치는 즐거움이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올해 강화된 '블루카본 키즈 체험 놀이터'는 단순한 유희를 넘어 교육적 가치까지 잡았다. 잘피 식물 심기와 샌드아트를 통해 갯벌의 탄소 흡수 능



트랙터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갯벌로 나아가 즐기는 버스킹 공연과 보물찾기는 하전 마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력을 배운 아이들은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효 큰 잔치'와 어린이, MZ세대를 겨냥한 '고바라 골든벨' '쑥스 콘테스트'가 조화를 이루며, 전 세대가 함께 어우

러지는 화합의 장으로서 축제의 본질을 살렸다.

축제 기간 방문객들이 구매했던 바지락과 장어, 김은 조기 품질 사태를 빚는 등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 방문 신청 접수... 10월 31일까지

부안군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와 농협이 시행하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한시적 지원사업이다.

군은 관내 대상 농업인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경유, 등유, 중유, 난방용 LPG 등의 유종에 대해 월별 평균가격과 기준 가격 차액의 70%를 보조한다.

지원 대상 기간은 경유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 구입분까지이며 시설농기 난방유는 3·4·9월 구입분이 해당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실제 지원금액은 유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농가별 실제 면세유 구매량에 따라 산정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보조금은 농협을 통해 산정 및 확정된 후 농업인이 등록된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어린이 건강·심폐소생술 체험관 본격 운영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

정읍시는 5월부터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놀이형 체험과 실습 위주로 구성된 '어린이 건강체험관'과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조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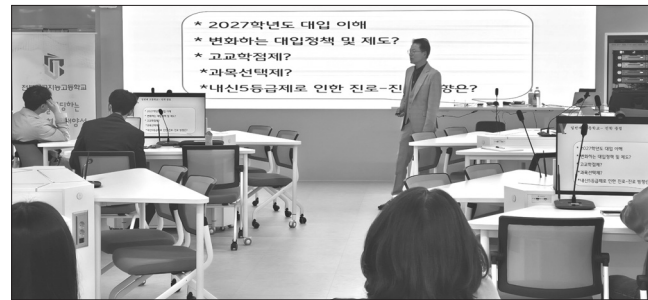
이번 시설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딱딱한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고 배우는 참여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어린이 건강체험관에서는 신체 활동 놀이형 과정을 시작으로 영양과 식생활 교육, 올바른 손 씻기 체험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구강 건강과 금연·절주 교육 등 다양한 습관 형성 활동이 이어진다.

심폐소생술 체험관에서는 기초 이론 교육과 더불어 119 신고 요령, 위기 대응 방법을 익힌다. 또한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참여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를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다. 시설은 사전 예약을 통한 단체 교육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자율 체험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예약형 단체 교육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회차당 12명 이내로 제한해 밀도 있는 활동 중심 수업으로 꾸려진다.

한편, 체험관 이용이나 교육 과정 참여는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063-539-6995~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연수' 운영 마무리

고창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수요 반영한 맞춤형 연수로 만족도 ↑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관내 고등학교 교사의 대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6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 대상 대입연수'를 6일 해리고등학교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각 학교 진학부장과의 협의회를 통해 연수 주제와 운영 방식을 공동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교별 희망 주제와 일정에 맞춰 강사를 매칭하고,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 교재 부담을 줄이고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연수는 2026년 4월부터 관내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학입시 변화에 대응한 학생부 기재 전략, 면접 대비 지도, 대입 환경 변화 분석 등 실제 진학지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교사들은 "학교에서 연수가 진

행되어 이동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우리 학교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숙경 교육장은 "이번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연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기획된 현장 밀착형 연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진로와 진학을 책임지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교육지원청은 향후에도 학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와 다양한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이달부터 유아숲체험원 2곳 운영

나들목공원·운곡습지... 안전한 자연 학습 체험 공간 제공

고창군이 유아와 가족의 건강한 숲 체험을 위해 '고창군 유아숲체험원' 2곳(나들목공원·운곡습지)을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트리하우스, 모험놀이대, 그물넛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군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최근 체험원 내에 천연연기피재 등을 설치·관리하며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유아숲체험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아이들이 울창한 숲속에서 피톤치드와 햇빛, 바람 등 자연 요소

를 만끽하며 창의력을 키우고 심리적 안정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다.

운영방식은 크게 '정기반'과 '수시반'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정기반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 기관을 대상으로 주 1~3회 정기적인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지속적으로 교감하도록 돕는다.

수시반은 개인이나 가족,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유아숲체험 지도사가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수시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군민이 산림 복지 서비스를 고르게 누릴 수 있게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